



도, 섬유·패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0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25년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업 설명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기초강연을 하고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도>

## 전북 급여 전국 꼴찌...임금상승대책 절실

전북 1인당 평균 급여액 3천848만원, 전국 시도 중 15위  
 전국 평균 87% 수준...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최하위'  
 도내 거주자 6만8천여명 타지역서 경제활동...지역 일자리 늘려야  
 좋은정치시민넷, 국제통계자료 전국 1인당 평균 급여액 비교 분석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국제성이 국제통계포털에 최근 발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북자치도의 주소지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이 3천848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87% 수준에 해당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서 주소지 기준 급여 수준은 서울이 가장 높고,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의 원천징수지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천76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85% 수준이며, 이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원천징수지 기준 급여 수준은 울산

이 가장 높고,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 경우, 주소지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이 3,708만 원으로 도내 4위이며, 전국 평균의 88.8%, 전북 평균의 96.4%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소지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전주시와 비교한 결과, 4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 원천징수지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597만 원으로 도내 7위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의 81.3%, 전북 평균의 95.5% 수준에 그쳤다.

도내 원천징수지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완주군이 4천863만원(전년대비 4.8% 증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군산시 3천738만원, 전주시 3천726만원 순이다. 원천징수지 기

준 익산시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천597만원(전년대비 4.7% 증가)으로, 전북에서 7위를 차지했고 전국 평균의 81.3%, 전북 평균 95.5% 수준이다.

전북에서 원천징수지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완주군과 익산시를 비교한 결과, 연 1,273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신고 인원을 분석한 결과, 전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근로자 68,283명이 타 시도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익산 거주 근로자 11,214명도 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일자리의 부족을 의미하며, 지역 일자리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손문선 대표는 "전북과 익산의 급여 수준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황에서, 기업 유치 시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통해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 도, 12년만에 출생아수 반등...저출생 극복 '청신호'

도내 9개 시군 출생아수...전년비 205명 증가  
 맞춤형 인구 정책 및 출산장려책 효과 나타나  
 전북형 저출생극복 모델로 지속 가능 인구정책 추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5명 증가한 6,897명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이 같은 성과는 도내 9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무주군이 2023년 43명에서 2024년 62명으로 19명(44.1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완주군은 411명에서 548명으로 137명(33.33%), 순창군 79명에서 98명으로 19명(24.05%)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고창군 32명(23.36%), 부안군 23명(17.69%), 남원시 22명(8.66%), 익산시 57명(6.18%), 정읍시 19명(5.64%), 군산시 17명(1.73%)으로 출생

아 수가 늘어났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출생률 반등이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 증가라는 전국적 추세와 함께, 도와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첫만남이 용권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난임 진단비 지원 및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해 출산 장려금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무주군의 경우 임신부 건강 지원사업, 출생아 첫 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순창군은 아동 행복수당 확대 등 특화된 지원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이 끌어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전북

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결혼·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목표로 ▲'반할 주택' 500호 공급 ▲청년 일자리 확대 ▲웨딩 비용 부담 경감 ▲전국 최초 어린이집 필요 경비 전액 지원 ▲24시간 보육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출생아 수 반등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인구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윤준병 의원, '군 장성 징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운영  
 징계 다른 보직 해임 시 전역되지 않도록 규정  
 4성 장군 등 고위 장교 징계 심의 제도적 한계 개선 목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육군참모총장 등 군 장성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징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장관 직속의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고,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성급 장교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해임정당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군 장성 징계법'을 대표 발의했

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2는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인 4성 장군(대장)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 장교가 없어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다.

실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대상 직급으로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육군참모총장이 보직 해임되는 경우 전역이 되어 민간인 신분인 만큼 현행법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군 장성 징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 道,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 운영

## 설 명절 맞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나서,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 3일 이내 신속 피해 처리

전북자치도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창구는 전북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협력해 운영된다.

창구에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배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사,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 쇼핑물,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매년 명절 기간 동안 약 70여 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전주시 거주 정모씨(70대, 남)는 홍보 차 흑마늘 건강식품을 보내줄테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반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제공된 건강식품을 홍보용 시음 제품으로 생각하고 지인들과 함께 섭취했으나, 이후 본품 대금을 청구받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했다.

창구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을 업체에 고지해 남아 있는 제품만 회수하고 대금 청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도 관계자는 "명절 특수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정혜민 기자



## 김관영 도지사, 다문화가족과 고향의 정 나눠 "전북도,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위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전북자치도는 20일 김관영 도지사 설 명절을 앞두고 완주군 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을 격려하고 고향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그룹, 엄마나라 언어를 배우는 영유아 부모들도 함께했다.

이날 김 도지사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과 소통하며 설 명절 간식인 꽃감호두말이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결혼이민자들의 고향 명절 음식과 문화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도 교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전북자치도가 주창한 '초지일관'처럼 여러분도 전북에 오며 세운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며 "전북자치도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2025년 2백억을 들여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자녀 교육, 결혼이민자 365인니 멘토단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가족센터를 설치해 다문화가족들이 고향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북 사회에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 전북자치도,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총력

## 신체적 조건·생활습관에 맞춘 개조 지원...올해 206가구에 7억 8천만원 투자

전북자치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택 내 장애물 제거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과 김대중 도의회 경제건설산업위원장 등 20일 익산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 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구의 신체적 조건과 생활 습관에 맞춘 맞춤형 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보수, 화장실 개조, 주방 싱크대 개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구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천4백여 가구에 52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206가구에 7억 8천만원을 투자해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익산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송 모씨는 "낮고 높은 주방 싱크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조된 싱크대 덕분에 편안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작은 변화이지만 스스로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돼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대중 도의원은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택 내 장애물 제거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자치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선제적 가동

(사)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20일 전북자치도 노인복지관에서 '2025 을사년 어른신 섬김행사'를 시작으로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어른신 400여 명을 초청, '어른신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란 주제로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최형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자치도연합회장, 도·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와 함께 어른신을 위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매년 1월 새해를 맞아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어른신들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떡국 및 명절음식 나눔, 방

한용품 전달 등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내빈과 어른신들은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가래떡 커팅식 등을 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첫 시작을 알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실현을 위해 어른신들의 귀한 경험과 지혜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로운 환경 변화를 준비하고 대응해 노인들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 명절 맞아 군부대·소방기관 위문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21일까지 육군부사관학교와 119안전센터 등을 방문,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안보와 소방 안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군장병과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부사관 양성의 중심으로 지역 안보를 굳건히 지켜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도지사는 "도민과 귀성객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 속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대비 태세

와 굳건한 통합방위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군과 소방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군장병과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익산 모현 119안전센터와 진안 119안전센터 등 5개 소방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동안 더욱 철저한 안전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 전북자치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선제적 가동

전북자치도는 최근 일사적 가뭄과 기온 상승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당초 내달 1일부터 운영 예정이던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0일로 앞당겨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성묘·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다.

도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258개소(도, 시·군, 읍면동)를 운영하며 1천500리터급 산불진화 임차헬기 2대를 조기 배치했다.

지상 진화 인력으로는 14개 시군에 산불진화대 658명과 산불감시원 760명을 선발해 사전 배치했으며 야간 산불에 대비한 신속대기조를 편성해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 산불이 연중화·대형화 돼 예년보다 빠르게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도민께서도 화목보일러 재처리나 소각 행위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 도, 항공마일리지 활용...동암재활원에 물품 기부

전북자치도는 20일 설 명절을 맞아 공공의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전주 동암재활원에 약 266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도청 직원들이 공적 출장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진행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기부 물품은 타올, 이불, 칫솔 살균기 등 총 16종 156개의 생활필수품이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출장 시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제약과 유효기간 결과로 소멸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도는 이러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생필품을 구매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부는 전북자치도가 두 번째로 진행한 사례로, 앞으로도 공적 마일리지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 어르신 안전을 지키는 도로횡단 5원칙





# 도, 섬유·패션 중소기업 지원...산업 개선 모색

전북도·ECO융합섬유연구원, 섬유·패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실질적 지원 방안 공유  
섬유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전북자치도와 ECO융합섬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일 익산 웨스틴아시아 호텔에서 도내 섬유·패션 관련 중소기업인들과 관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섬유·패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섬유·패션 중소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최신 정책과 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경영개선과 섬유 산업 생태계 강화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이뤄졌다. 첨단 섬유소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시험 분석 서비스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전북자치도와 ECO융합섬유연구원은 20일 도내 섬유·패션 관련 중소기업인들과 관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패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적인 경영 개선 방안과 섬유산업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섬유 중소기업 대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필요한 지원

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ECO융합섬유연구원과 함께 섬유제조기업의 신소재 개발과 친환경섬유소재, 안전보호용 섬유소재 제품개발, 활성탄소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와 연구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내 섬유·패션 중소기업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도전경성, 초지일관'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섬유·패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관련 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주, 소상공 선결제 '착한 소비자운동' 시작 인증 시민 추천 온누리상품권 200만원 지급 이벤트

정국 불안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착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했다.

전주시는 20일 효자동 인근 착한 가격업소인 서부원조떡집에서 우범기 시장과 임숙희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소비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결제 및 재방문을 약속했다.

골목상권에 투입되는 현금의 시기를 앞당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착한 소비자운동은 이날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추진된다.

착한 소비자운동은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업체(식당, 카페, 미용실 등)에 먼저 결제하면, 지역업주는 결제 범위 내에서 영실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착한 소비자운동으로 소비자를 통한 경제회복 시기를 앞당기는 촉매가 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태 기자

## 전주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월 1회로 확대 운영 추진

기존 연 2회→25년 상반기 월 1회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달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이용 장보기 행사 계획

전주시는 최근 체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 술선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기존 연 2회에서 2024년도 하반기 월 1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설과 추석 명절에 맞춰 연 2회

행되던 장보기 행사를 25년 상반기 월 1회로 확대하고, 일상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설을 맞아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농산물과 먹거리, 세수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

하는 것으로 장보기 행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장보기 행사 확대 운영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우리 지

역의 중요한 경제적·문화적 자원으로, 이번 장보기 행사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뿐 아니라 민생경제의 전반적인 회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 설 앞두고 복지시설에 500만원 후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취약계층인 저소득 독거 어르신과 복지시설 보호아동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다. 후원금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나눠드리고, 식료품과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 함께한 공단 직원 10여 명은 복지관 점심 봉사활동에 참여해 200인분의 음식을 배식해드리면서 어르신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아울러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설 명절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과 아동을 위해 전북지역 보육원과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오는 24일까지 500만 원의 임직원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 한국새농민 전북대회,대의원 정기총회서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 결의

한강희 전 감사 13대 회장 당선, 박기원·장영두 감사 선출...회계 결산 및 사업계획 수립·농업발전 위한 협력 강조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대회(회장 이기성)는 20일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도내 새농민회 임원 및 시군 대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회계 결산 및 202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발전을 위한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13대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대회는 20일 전북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정기총회 및 13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선거를 실시했다.

회장에는 前)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 한강희 감사가 당선됐으며, 감사

에는 前)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 박기원 감사와 前)한국새농민 남원시회 장영두 회장이 당선됐다.

(사)한국새농민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이기성 회장은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바탕으로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해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본부장은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새농민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전북농협은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새농민과 함께 전북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신뢰받는 협력자로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김경안 새만금청장, 외국인 유학생에 '사랑의 쌀' 전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 지역에 있는 군장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0명에게 쌀 200kg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금 국가산단에 취업도 하고 희망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군장대학교는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과 기업, 학교 간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맞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새만금 국가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은 다음 날 김제와 부안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 인근 지역민을 위한 온정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제 40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20일 전주 라한호텔 1층 온고을홀에서 대표회원 및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건넨다. "불안한 국제경제와 혼란한 국내 상황 등이 건설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전문건설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회원사 모두의 마음과 힘을 결집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5년 한해도 전문건설 업역 보호 및 우수물량 확대를 통해 회원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협회가 전문건설 재도약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전문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를 포상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준호 기자

## 전북농관원, 설 명절 대비 시장 원산지표시 합동 캠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국장 김민욱, 농관원전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농산물 명예감사원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명예감사원 합동캠페인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위주로 실시했으며, 표시판도 같이 배부했다.

또한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이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을 투입해 소비금액,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24일까지 점검중이며, 현재까지 거짓표시 22건(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미표시 20건 총 42건을 적발했다.

농관원 전북지원 김민욱 지원장은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명예감사원과 함께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

## 전북은행, 고흥사랑기부제 활성화·동참 독려 캠페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아우름 캠퍼스에서 고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3년 고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진행해 온 자체 캠페인으로서 지난 17일 실시한 이날 캠페인에는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해 전북은행 임원 및 부사장, 지점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전북은행 전 임직원은 올해도 고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하며 답례품 제기 부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기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백종일 은행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탬"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 AI디지털교과서 강행 NO·최상목, 거부권 행사 NO

### 전북교육단체, "AIDT 맞춤형 반복학습 불과... 학생을 수동적 학습자로, 교사는 학습보조자로 전락시키는 것"

전북 지역 교육 구성원들이 고교무상화를 거부하고, AI디지털교과서를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교육단체들은 지난 2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는 이주호 장관과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네트워크, 전북참교육학부모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사실상 AIDT는 맞춤형 반복 학습에 불과하며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에 적합한 콘텐츠다"라며 "그럼에도 강행한다는 것

은 학생을 수동적 학습자로, 교사는 학습보조자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법안에 이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AIDT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디지털화를 추진했던 북유럽 국가 학생들이 다시 전통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의 세손 결손으로 지난 2년간

15조여 원이 미교부됐으며 시도교육청 재정은 심각한 위기다. 고교 무상교육비 예산을 전북교육청이 감당하게 되면 재정 악화는 볼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리 부승조 김현주 교사는 "교육적 자료가 아닌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택하라고 학교에 맡기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AI디지털교과서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집중력 및 문해력에 굉장한 안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IDT 활용을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 수요조사에 나선 상태"라며 "학교 현장 구성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학교별, 학년별, 교사별,



과목별로 신청을 받는다. 희망학교에는 교사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구축 및 인프라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 특목·자사고 신입생 경쟁률 하락

### "교육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특목·자사고 지원 증가세 멈춰"

전북지역 특목·자사고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종로학원 '전국 69개 외고·자사고·국제고 지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산고와 전북외고의 2025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학교별로 상산고는 전체 336명 모집에 739명이 지원해 지난해(2.22대1)보다 하락한 2.2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경쟁률 높은 고등학교

1로 1위를 기록했다.

전북외고는 전체 160명 모집에 184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1.1%p 하락한 1.1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특목적이고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와 예측과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대 증원과 수능 개편 등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며 상위권이 몰리는 특목·자사고 지원 증가세가 멈춰섰다"고 분석했다.

/최성민 기자

## 전주대 이진석 LINC3.0사업팀장, 교육부장관 표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LINC 3.0 사업단 이진석 팀장이 2024년도 LINC 3.0 사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진석 팀장은 2003년부터 지난 21년 동안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주주하는데 헌신의 노력으로 참여했고, 자·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교육부의 산학협력정보담당관협의회 호남제주권 부회장으로서 3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과 창출, RIS 지역대학 연계 늘봄학교의 운영, 지역혁신단의 설립 및 운영 등 산학협력 제도의 구축과 산학협력프로그램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표창을 수상받게 됐다.

이진석 팀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인 안착과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더욱 정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청렴위반주의보' 발령

###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나선다... 명절 분위기 공직기강 해이 방지·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나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명절 인사로 명목으로 한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직무해태, 품위 훼손, 근무지 이탈 등 복무 위반 ▲문서보안, 시설보안 등 보안관리 실패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패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가 발견되

면 고의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사랑의장학회, 학업위기 학생들 4천만 원 장학금 지급

### 중학생 50명 각 40만 원·고등학생 40명 각 50만 원... 유정기 이사장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재)전북교육청사랑의장학회(이사장 유정기)는 지난 20일 학업위기 학생 90명에게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지급은 가정과 사회적인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업위기에 처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였다.

전북교육청사랑의장학재단은 지난해 11월에 3개의 단체가 기탁한 4000만 원으로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의 장학금을 이날 지급했다.

장학생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로 학교장 추천과 학생선발협의회 선정 과정을 거쳐 중학생 50명과 고등학생 40명 등 90명이 최종 선발됐다.

학업위기 장학금은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학업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에 처음으로 지급했다.

유정기 이사장은 "학업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우석대, 우석캠프 시상식 개최... 총 9,280만 원 장학금 수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2006년부터 재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석캠프' 프로그램에서 정보문(한의학과 2년) 학생이 골드챔프로 선정돼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난 20일 우석대학교 교육혁신본부는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 완주·우석 전당대 'W-SKY 23'에서 박노준 총장과 캠프 장학금 수상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학년도 우석캠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골드챔프 1명을 비롯해 실버챔프 16명, 브론즈챔프 5명은 캠프 인증서와 함께 각각 1000만 원(골드챔프), 360만 원(실버챔프), 210만 원(브론즈챔프) 등 총 928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우석캠프는 ▲기본소양과정 ▲경쟁력 강화과정 ▲전문화과정 등 3개 과정 12개 활동영역으로 구성된 비교과 프로그램에 이수하면 획득한 마일리지에 따라 골드·실버·브론즈 등 5단계로 나눠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 전주기전대학 축구부, '제21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 진출

### 7년 만에 오른 결승 무대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이 경남 통영에서 열리고 있는 제21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4강전에서 홍익대학교를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부차기로 제

압하고 2025년 첫 챔피언 결정전에 도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주기전대학은 지난 2018년 영광군에서 열렸던 KBS N 제 14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에서 준우승 이후 7년 만에 통산 두 번째 결승 무대에 오른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전 3실점 이후 본선 인제대, 동명대, 호원대, 홍익대 연속 무실점의 철옹 수비력을 갖춘 다음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절묘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김수영(골키퍼), 김태민, 김이삭, 양재민의 쓰리백 라인인 돌풍의 주

역이라 할 수 있다.

전주기전대학은 지난해 4관왕을 달성한 선문대학교와 21일 오후 2시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우승트로피를 두고 2025년 첫 챔피언을 가린다.

/최성민 기자

## 희망찬 2025년 푸른밤의 해

#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순창의 밝은 미래를 위해!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손종석**  
의장

**이성용**  
부시장

**김정숙**  
행정복지위원장

**마화롱**  
경제산업위원장

**신정이**  
의원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 고창군, 60억 투입 '걷고 싶은 길' 조성

## 행안부 주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고창읍 중앙로·성산2길 최종 선정

고창군 중심을 가로지르는 중앙로와 성산2길이 안전하고 걷고 싶은 길로 대변신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대상으로 고창읍 중앙로와 성산2길이 최종 선정됐다.

고창읍 중앙로는 공용버스터미널부터 고창군청까지를 잇는 길이다.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았다. 성산2길은 터미널부터 고창고등학교 앞까지의 2차선 일반도로로 인도가 따로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컸다.

군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안전하고 걷고 싶은 길로 바꿔낼 계획이다. 인도설치, 차량속도 저감시설, 보행자편의를 위한 시설, 범죄예방시설, 전선 지중화, 교통체계 개선, 워터조성 등이 이뤄진다. 특히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대상으로 고창읍 중앙로와 성산2길이 최종 선정돼 안전하고 걷고 싶은 길로 대변신한다.

국가시범사업', '한전 지중화사업' 등과 연계해 세계유산도시 품격에 걸맞는 깔끔한 도시 가로환경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안전하고 특색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보행 편의를 도모하고 명품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지난해 최고 행정역량 입증

## 체계적 평가관리로 50여건 기관표창·7억여원 확보

고창군이 지난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중앙기관 15건, 도 16건 등 50여건의 기관표창과 함께 7억여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최고의 행정역량을 뽐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주요평가로 지정·관리했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도내 유일' 1등급을 달성하는 등 행정역량을 제대로 입증했다.

고창군 기획예산실은 지난 2023년부터 정부 주요평가 항목 10개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다.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군 최초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최우수군 선정 등 대외적으로 행정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각 부서를 대표하는 15개의 평가를 추가해 관리 대상을 총 25개로 확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각 평가목표를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하고 부군수 주재의 전략회의의 수시 개최, 추진사항 점검 및 각종 대응방안 모색 등 우수성과 달성을 위해 행정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재난관리 최고등급 및 재할용 등 자원순환 추진실적 최우수, 농기계 임대사업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최고의 행정력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행정역량 집중을 통한 값진 결실로 군민들께 군정에 대해 신뢰감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올해도 고창군 공격자와 함께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1등 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설 명절 대비 올해 첫 '청렴주의보' 발령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설 명절을 맞아 공직자간 확립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인사철, 휴가철, 명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유지를 위해 수시로 발령되며, 이번 설 명절 청렴주의보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격 기준 안내 ▲공직자의 금품 수수 금지 등 다각적으로 추진해 청렴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명절과 인사철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며 공직사회 청렴 의식 고취와 시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실천해 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렴 청정도시 김제 건설을 위해 '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시민 모두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부패 취약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고 새해에도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김제시, 민관 함께 '물가안정' 추진나서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농·수산물 등 물가안정 대책반 구성, 품목별 물가조사 점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설 명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관이 함께 실천하는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

시는 먼저 체계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산물, 축산물, 요식업 등 6개 분야 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소비자연합 김제시지부와 합동으로 오는 6월까지 주기적으로 품목별 물가조사 및 점검·관리에 나선다.

또, 시는 지역 내 상인회, 소상공인협회, 소비자연합 등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자율동맹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업계별 월례회의나 간담회 시 물가안정 자율동맹 결의대회를 유도해 나

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일 소상공인협회 신년회에서 김제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물가안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소비자연합 김제시지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대규모 상점가 등에서 월 2회 '함께 만드는 착한 물가' 민관합동 대시민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및 사용기간 중 일명 카드강이라 불리는 부정유통이나 가격담합 등의 불법 상거래 방지를 위해 불법 상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상거래 발견 시 경제진흥과(540-3982)나 안전재난과(540-3497),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금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민관이 함께 실천하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의회, 서부지검 폭력사태 엄중처벌 촉구

부안군의회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부지검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이강세 의원은 "이번 불법점거 폭력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련자들에게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부지검의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원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의회, "도민 결집·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

김제시의회의회(의장 서백현)가 2036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성공을 위한 릴레이 피켓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2036 하계올림픽의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림픽 유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백현 김제시의회의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는 국가 균형

발전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오는 2월 말 올림픽 유치 대상지가 최종 선정될 때까지 김제시의회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여론을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시의회의회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 '생활인구 확대 전 부서 노력' 당부

## 사업계획 수립 방향 '생활인구 확대'...종합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주문도



권익현 부안군수

권익현 부안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전 부서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20일 열린 1월 중 연석회의에서 "2024년 생활인구 방문객 수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며 "최근 코레일관광개발의 가장 많이 간 2024년 여행지 1위도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부

생명유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촉구와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추진된 서명운동이 오는 31일 종료된다"며 "마지막까지 군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운동도 적극 홍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서명운동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전지훈련 34팀 유치...지역경제 '활력'

고창군이 동계(1~2월) 관광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6일 하남제일 리틀야구단을 시작으로 초등·고등야구부 4개팀, 배드민턴 국가대표 상비군, 초등·고등부 태권도 29개팀 500여명이 전지훈련 중이다.

지난 19일 첫 전지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하남제일 리틀야구단의 지도자는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에 전념해 동계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는 경희대학교, 수원시청, 인천 동구청 등 10개팀 고등부 태권도 선수단 130여명이 고창을 찾아 25일까지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특히, 2024년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서 우리나라 최초로 58kg급 태권도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준 선수가 참석하고 있어 초등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고창군은 전지훈련 기간동안 선수들에게 물, 음료, 간식 지원 등 선수들이 고창에서 머물며 최상의 컨디션을 끌

어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방문한 선수들이 우수한 체육시설에서 부상 없이 훈련해 좋은 훈련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새고창장례식장 주최, 웰다잉 인식향상 공모전 성료

새고창장례식장이 주최한 제1회 웰다잉 인식 향상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고창군 관내 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웰다잉 인식 향상을 주제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

조미영 대표는 "죽음과 장례리는 어두운 주제를 양지로 이끌어낸 학생들의 작품이 웰다잉 인식 향상에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 같다"며 참가자들에게 감

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고창고등학교 3학년에게 재학 중인 백수련 군이 차지했다. 백수련군은 회화와 웹툰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지역의 유망 인재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더 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창=백종규 기자

# 2월 2일까지 부안군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부안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응급환자 진료와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자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중 92개의 병의원과의 약국이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준수해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해성병원은 야간진료실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또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 부안군보건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진료를 실시한다.

일반 약국들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대에는 더조은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을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소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부안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완주 수소기업 3,500만弗 계약 '잭팟'

(주)BTE, 미국 수소 솔루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수출 계약 체결  
수소산업 육성정책 결실...유희태 군수 "기업 성장 전폭 지원"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완주군에서 3,500만 달러(약 460억 원) '수출 대박'이 터졌다.

20일 완주군은 관내 수소기업 (주)BTE(대표 심규정)가 미국 수소 솔루션 기업 H사(대표 김규정)와 3,500만 달러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기(GEN Series)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BTE는 지난 2020년 11월 창업한 수소 스타트업 기업으로 현재 완주군에 수소 제품 양산 공장을 세우고 있다. 올해부터 완주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완주군은 수소산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로 도

약 비전을 세우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2,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탄소융복합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대용량 수소저장용수송기 개발 사업을 육성하고 지난 2024년 6월에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주)BTE와 같은 수소 관련 스타트업과 수시로 소통하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완주군은 일진하이솔루스, 아세스, 덕산에테르시티 등 수소전문기업 3개사와 비나텍, 플라스

틱옵니엄, 가온셀 등 예비수소전문기업 3개사 등 1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오는 22일에는 우석대학교와 협력해 완주수소연구원도 문을 연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거버넌스 운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주)BTE의 수출 계약은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산업 육성 정책의 결실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 순창, 설 연휴 병원·약국 등 의료대응체계 운영

### 당직 의료기관 지정 응급환자 발생 대비...의료공백 최소화

순창군이 설 연휴 기간동안 의료대응체계를 유지로 주민의 진료 불편 최소화해 나간다.

군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순창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보건진료소 8개소, 병·의원 32개소, 약국 15개소를 설 연휴 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일과 야간 응급 상황을 고려해 365일 운영되는 공공심야

약국도 운영된다. 순창읍 순창로 232에 위치한 제일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자정까지 전문 약사의 의약품 구입·상담 및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설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의 세부 운영 일정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이상 회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춘향제전위원회, 1차 회의 개최...기본계획·예산안 등 심의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9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광원 위원장, 위원, 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제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95회 춘향제 기본계획 및 추진 상황 보고 ▲예산(안) ▲신규위원 위촉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그 외에도 제94회 춘향제 성과를 공유했으며, 제95회 춘향제의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 방안, 중장년 세대를 타겟으로 한 폼바 공연 활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5회 춘향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관내 19곳에서 개최되며, 소리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더불어, 더네펴코리와 협업을 통한 F&B 운영, 유채꽃밭 신규 조성 등 남원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다양한 볼거리와 품질 있는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구驛舍 철거로 역사 가치 보존한다

만인공원 조성 부지 구역사·플랫폼 지하부 정밀발굴조사...매장유물 확인

남원시가 구남원역사와 향기원 부지에 만인의 충·광한루·남원읍성 등 도심 내 주요 거점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성 회복을 위해 구역사와 플랫폼, 지하부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매장유물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은 남원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폐 역사 부지(동중동 197-1 일원)에 만인의 충, 광한루, 남원읍성 복원 복원사업 등과 관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 민 의견수렴을 통해 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다 2019년부터 시민 공모로 읍성과 남원역이 포함된 만인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 오는 2027년까지 조성되고 있다.

만인공원 조성은 부지가 문화재 구역에 속해 있어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해야 함에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구역사 주변의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만인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인 남원시가 역사성 회복을 위해 구역사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매장유물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그간 북 성벽의 해자와 양마장, 격자형 도로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로 유구, 건물지, 토기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수 많은 유물들이 발굴됐다. 지난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현지 조사 결과 '만인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중요 유적의 요소를 고려한 정비 등의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바 시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구역사를 철거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현재 구역사의 위치가 항구 복원된 남원읍성 복원과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러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부득이 구역사는 철거해야 하지만 구역사가 3대에 걸쳐 지어진 역사인 만큼 기록화를 통해 만인공원에 녹여내고, 철로 역시 발굴조사 완료 후 일부 재설치와 리뉴얼을 통해 공원 시설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 민선8기 공약사업 조기 완수 추진



완주군이 민선8기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조기완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112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이행률을 면밀히 분석했다. 2024년 4분기 기준 공약이행률은 61.6%이며, 이중 완료 12개, 이행 후 계속추진 57개, 정산추진 41개 등으로 나타났다.

유 군수는 "공약 조정 등을 통해 달

성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부진 공약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을 실시 후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 완수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군수는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와 전북특자도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은 작년 한국매니페스트 토질선분부 주관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하면서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와 동력의 우수성을 확인했으며 한국매니페스트토질선분부가 주관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 순창군, 반부패·청렴정책 회의 개최...청렴 의지 다져

순창군이 '제1차 반부패·청렴정책 기관장 주재 회의와 고위간부 청렴서약식'을 개최하며 새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염기남 부군수, 각 국실과소장 25명, 읍·면장 11명 등 총 3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군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년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최영일 군수 취임 이후 강력히 추진해 온 청렴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높은 청렴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진 청렴서약식에서는 참석한 모



순창군이 제1차 반부패·청렴정책 기관장 주재 회의와 고위간부 청렴서약식을 개최하며 새해 청렴도 향상 의지를 다졌다.

든 고위직 간부들이 청렴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를 대비해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위한 청렴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설정된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특별 교육 실시, 외부채용도 향상을 위한 직원 특별 교육 강화, 기관장 주도의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 발굴 및 시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가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딸기, 상추, 토마토 재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기준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선발

하며, 교육생 모집은 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3-5월 50시간의 이론 교육과 스마트팜, 창업, 마케팅, 작물 재배 등 기초 농업기술을 다루며, 이후 50시간의 현장 적용 교육과 5개월간 400시간의 현장 실습이 진행된다. 실습 과정에서 선도 농가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기술과 현장 노하우를 체험하며, 실전 창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2월 1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교육과정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력육성팀(063-620-8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농업인 맞춤형 토양분석 무료 지원

완주군이 농업인을 위해 맞춤형 토양분석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20일 완주에 따르면 토양검정은 작물 재배 전 필수로 이뤄져야 할 과정으로,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농경지의 남아있는 영양상태인 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 전기전도도(EC)를 분석해 다음 작물에 필요한 적정 비료량을 산정한다.

토양검정 적기는 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정식하기 1개월 전으로,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까지 2주가 소요된다.

비료사용처방서는 우편 또는 문자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정결과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최정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주군 토양종합분석센터는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경지 환경보전과 로컬푸드 인종 필수항목인 토양검정을 연간 4,000여 점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토양종합분석센터에 토양시료를 지참하고 방문 의뢰해야 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 순창먹거리연대, 저소득층에 설맞이 식품꾸러미 나눔

순창먹거리연대는 최근 설날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250만원 상당의 식품꾸러미 50개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꾸러미는 1개당 5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순창군 관내 저소득층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순창먹거리연대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먹거리연대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 탄력적 지급 개시

남원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요일제)에 맞춰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을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

획이다. 5부제(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남

원시에 주소록 등 총 7만 6,801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1인당 30만원씩 제공되며,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을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더본건설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일 (유)더본건설 진재석 대표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더본건설 진재석 대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어려운 상황에 절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유)더본건설의 성금기탁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더본건설 본아르떼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완주가족문화교육원서 설 명절 음식 나눔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채미화)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설 명절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설 명절 실천 나눔을 실시했다.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3개 단체의 15명은 돼지불고기, 삼색나물(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등 4종으로 구성된 설 명절 음식을 준비해 한부모 가정, 홀몸노인·장애인가정·자립준비청년 등 관내 200여 가구에 안부를 확인하며 전달했다.

채미화 회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하기에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에는 매년 설·추석 명절이면 밀반찬 나눔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시에 백미 352포 전달

설 명절 맞아 사랑의 쌀 기부, 이웃사랑 실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 따뜻한 명절 보내길"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공장(공장 박진규)이 설 명절을 맞아 사랑의 쌀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20일 군산시는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352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미로 HD현대인프라코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으로 이뤄졌으며, 기탁된 성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그리고 저소득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공장(공장 박진규)이 설 명절을 맞아 사랑의 쌀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공장 박진규 수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공장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도 동절기 소외계층이 없도록 찾아보고 보듬는 행정복지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다송리사람들, 익산시에 천만원 상당 유기농 장류 기탁

익산행복나눔마켓·다이로움 나눔공간 이용 위기가구 및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

익산시는 영농조합법인 다송리사람들(대표 김현정)이 시정을 방문해 1,000만 원 상당의 장류를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고추장과 된장 등 다송리사람들이 생산하는 고스락 장류로, 익산행복나눔마켓과 다이로움 나눔공간을 이용하는 위기가구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김현정 대표는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장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매년 기부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눠주시는 다송리사람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후원해 주신 물품은 지역의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 청소년적십자, 라오스 해외봉사활동 성료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전북 청소년적십자(RCY) 단원 및 지도자로 이뤄진 50명이 라오스 해외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봉사는 6박8일 일정으로 라오스 현지 3개 도시의 학교 보습 및 환경 개선 환경, 문화교류활동(K-POP댄스 시연, 태권도 체험), 현지 학생들과의 멘토-멘티 활동 등을 펼쳤으며, RCY 단원들이 직접

포장한 우정의 선물상자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협의회 최혜영 회장은 "출발 전엔 긴 일정이라고 생각했던 6박 8일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며, "라오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봉사하러 간 저를 더 힐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다.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취원진)알미늄, 전주 '함께라면'에 라면 100박스 기부

(취원진)알미늄(대표 원태연)은 20일 전주 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1인 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전주함께라면' 사업을 위한 라면 100박스(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산속등대'에서 (취원진)알미늄 원태연 대표가 직접 개발, 판매중인 라면 '소양면'을 전주시 1인 가구 등 고립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 '전주함께라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이번 기부를 결심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전달된 라면은 8개소 전주함께라면 카페 공간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소회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원태연 (취원진)알미늄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전주시의 따뜻한 정책사업 전주함께라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창군 3개 산림사업법인 대표,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전해

고창군에서 산림사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유)뜨믄엔지니어링(대표 최학원), (유)새솔엔지니어링(대표 이경현), (유)쌍원엔지니어링(대표 박종화) 등 3개 법인 대표는 20일 고창군청을 방문해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기탁했다.

3개 법인 회사는 미래 경제가치가 높은 산림 조성과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조림숱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에 참여하고 있다.

각 법인 대표들은 "고창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유)동방건설 정영태 대표,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원 기탁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유)동방건설 정영태 대표가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동방건설은 유리 및 창호 공사업체로 2007년에 창립해 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업, 유리 및 창호공사업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에 대한 변치않는 애정과 관심으로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이 군민 복리 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설 연휴 가스·전기 안전사용 안내

가스안전사용

- 1. 귀성길에 오르기 전 가스밸브는 꼭 잠그고 떠나세요
2. 가스사용 전 점검과 환기, 잊지 마세요
3. 세심한 가스시설 점검으로 연휴를 안전 하게!

전기안전사용

- 1.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꼭 뽑고 떠나세요
2. 플러그를 뽑으명 전기도 절약, 화재도 예방 됩니다.



〈一事一言〉



‘민의를 전당’ 더럽힌 국회의원 김민전 제명하라

김민정  
전 국회의원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를 선서한 대통령이 헌법 위반 혐의로 탄핵심판에 회부되어 있다. 헌법수호와 국가보위를 커녕 내란과 외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뽑아 준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배신이다.

헌법 준수와 국민의 자유·복리 증진을 선서한 국회의원이, 내전 운운하며 백골단을 자처한 이들을 국회 소통관에 세우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로 추켜세우며 직접 소개했다. 국회 모독이며, 폭력 선동이고, 역사외식 부재의 셀프 폭로다.

세상에 다양한 형식의 기자회견이 있지만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은 특별히 높은 수준의 공격 책임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신청하고 발언하거나 직접 참석해 소개하는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의원 배치를, 권한을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책임에 대한 인식 없이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감히 군사독재 시절 폭압통치의 상징 같았던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울 생각을 한단 말인가.

더구나 김민전 의원은 서술 퍼렇던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대학 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 시절 백골단은 그저 단순 시위진압을 하던 조직이 아니었다.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그에 저항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한 독재정권 최

말단 폭력조직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곳곳에 괴기스럽고 혐기적인 일들 투성이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견 아니다. 이런 사람이 학생들에게 다른 것도 아닌 정치를 가르쳤더니 생각만 해도 끄찍한 일이다.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국민 요구와 생각을 대변하는 곳이지만 반 헌법적 요구까지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폭행범이나 마약사범을 두둔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폭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했던 독재 옹호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

계엄으로 독재 회귀를 시도했던 윤석열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그 때문 아닌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정신을 위배한다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백골단을 자임하는 이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의원이 국회 교육 상임위 위원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상임위원회는 자라나는 학생들과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 법률을 다룬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교육위 위원들은 모두 ‘교육적 관점’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정치학자로 정치를 오묘 시간 이가 교육상임위 위원으로 교육을 얼마나 또 왜곡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12.3계엄 이후 지속되는 내란

상황에서 연일 전국적 탄핵 촉구 시민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부모 손을 잡고 나온 학생, 청소년들은 물론 집회 연단에 직접 올라 발언하는 초·중등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어른들이 부끄러운 정적으로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내란 상황 장기화는 오히려 수많은 미래 유권자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학습하도록 만든다. 정치적 문제들에 관심이 높아진 청소년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국회 교육 상임위 위원인 국회의원이 자칭 백골단과 나란히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볼 확률이 높아졌다.

그 장면을 보고 혼란을 느낄 아이들도 있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을 키울 아이들도 많다. 나아가 그런 국회의원이 속한 교육상임위가 만드는 법과 정책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민전 의원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몹소 국회 불신을 학습시키는 교재가 되었다.

계엄군에 이어 백골단에 더럽혀진 국회, 방치해선 안 된다. 김민전 의원은 비판이 거세지자 기자회견 사후 서둘러 철회 입장을 밝혔다. 본인이나 선 기자회견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철회’는 또 뭔가. 이미 할 말 다한 기자회견 내용과 영상을 거둬들이지도 않고 철회가 되나.

그는 오로지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을 ‘불편하게’ 해 공들여 얻은 지지가 철회될 것이 두려웠던 듯하다. 몇 시간 전 자신이 그렇게 치켜세웠던 이들과 껌싸게 손절하는 모습조차 참으로 비루하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서 그 자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탄핵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원에 게서 그 자격을 박탈하는 국회의원 소환제도 같은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김민전 의원의 반헌법적이며 반교육적이기도 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자 헌법기관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 김민전 의원 제명에 나서라. 계엄군에게 침탈됐던 국회가 또 한 번 백골단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지 않은가.

본 칼럼은 시인민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을 발췌합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폭도들의 난동 발본색원해 엄벌하라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고 난동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의 폭력적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서 체포한 87명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가담자 처벌에 그칠 일이 아니다. 폭도들과 그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죄해야 한다.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수백 명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법원의 상징인 현관까지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내부로 침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취재자들을 폭행했다. 심지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고 청사 곳곳을 휘젓는 등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시위의 범주를 넘어선 명백한 내란 행위다. 이번 난동은 단순히 법원의 물리적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법치주의의 상징인 사법부를 직접 공격하고 판사 개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침탈했던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배후에서 폭력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세력들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공격한 폭도들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유측 변호인들은 “경찰이 시민을 자극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경찰에 떠넘겼다. 이러한 발언은 폭도들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이 체포 직후 지지자들에게 “나라 법이 무너졌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선동한 행위는 사태를 악화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를 방지한다면 법치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과 그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폭력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를 선동한 정치인과 종교인, 그리고 조직적 배후가 있다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폭력적 행동을 부추긴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불가피하다. 또한, 이번 사태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전달되면 외교적, 경제적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말뿐인 다짐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달해야 한다. 경찰과 사법부는 판사들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향후 진행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폭력적 행태와 선동적 정치 행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할 때다.

**용오정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인물기념, 사우  
- 지정일 - 1980년 3월 8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산33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윤문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주시국 010-8626-6049
송전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연륜(年輪) / 김기림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날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글 두 글 굵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털며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려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年輪)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시인 약력 ; 1908년 함북 성진 출생. 일본 니혼대학 문학예과와 동북제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함북 경성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1931년 '산동아'에 '고대(苦待)', '날개만 뜬지'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33년 구인회에 가입하고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시운동의 이론가이자 모더니즘 시론을 실제 창작에 실험했으며 광복 후 조선문학가 동맹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나 곧 전향했다. 시집으로 장시의 '기상도'와 '태양풍속' 등은 일제 강점기에 출간되고 광복 이후 '바다와 나비', '새노래' 등을 간행했다.

하루의 이야기, 전북타임스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282-9601 기사제보282-9603 구독신청282-9600



## 마이산 탐사 붓다봉사단, 베트남 산골 유치원 “감로수” 후원

마이산 탐사(주지 진성스님)가 지난 1월 6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디엔비엔성 남포현 6개 유치원에 7개 지하암반수와 식수대 1개를 설치하고 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라오스와 국경지역에 인접한 이번 베트남 유치원 암반 지하수 후원 봉사는 마이산 탐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이 주최하고 한국불교 태고종 원웅승가회(회장 일로스님)가 주관하여 이루어졌다.

붓다봉사단과 원웅승가회로 구성된 34명의 봉사단은 전북 전주를 출발해 인천공항공과 하노이공항공을 경유하여 18시간 만에 베트남 디엔비엔푸시에 도착하고 다시 해발 1200m 고갯길을 버스로 6시간 동안 달려 남포현에 도착했다.

지난 7일 남포현 화반유치원에서 진행된 유치원 지하수 준공식에는 태고종 전북총무원장 진성 스님과 붓다봉사단 총괄이사 현진 스님, 이재현 붓다봉사단장, 원웅승가회장 일로 스님 등과 베트남 측에서는 황롱 디엔비엔성 국경수비대장과 응웬 후 남포현 부원장, 황티빅 남포현 교육청 부청장을 비롯해 비 티 루안, 다 티 사우, 나히, 르엉 티 투안, 나봉, 러티와 유치원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붓다봉사단과 원웅승가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현 붓다봉사단장은 “베트남 디엔비엔성 남포현 화반유치원을 비롯한 6개 유치원에 지난해 11월에 현지답사를 하고 성금을 모집하여 총 8,900

만원을 들여 2달 공사 끝에 이번에 준공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 디엔비엔성 남포현 화반유치원 비 티 루안 원장은 환영사에서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해준 한국의 불자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진성 스님은 “이번 베트남 디엔비엔성 남포현 지하수 후원은 650여 명의 아이들과 교사는 물론 6000여 명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부처님의 자비로 어린이들이 앞으로 감로수를 마셔 건강해질 우리 아이들이 베트남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준공식을 마친 봉사단은 디엔비엔성 SOS보육원을 찾아 인형과 간식 등을 선물했으며, 지난 11일에는 하노이 프영찬 호텔 연회장에서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장호승 총영사 겸 공사, 그리고 조수호 전북특자도 하노이 경제통상 거점 소장, 김대식 전 카자흐스탄 대사이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태권 복지TV전북방송 사장, 베트남 현지 교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수 후원 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디엔비엔성 불교총무원인 영화사와 팍죽사 등 불교 사찰을 방문해 양국의 불교 교류를 통한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진안=전길빈 기자

- ◆ 총 8,900만 원 성금 투입 2달 공사 끝 준공식 개최
- ◆ 6개 유치원에 7개 지하암반수 · 식수대 1개 설치
- ◆ 디엔비엔성 SOS보육원 찾아 인형 · 간식 등 전달
- ◆ 불교 사찰 방문 양국 불교 교류… 화합 다지는 시간



# 1번지 완주

대한민국 경제

세계일류 수소도시 호남제일 물류메카

완주군 WANJUGUN